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기아 대 롯데경기. 3회초 2사 만루에서 기아 이용규가 만루홈런을 때리고 있다. 이용규는 이날 같은 이닝에서 선제 3점홈런을 때리는 등 한 경기 8타점을 올려 이 부문 타이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이용규의 날’ 1이닝 7타점 新

3회 3점·만루홈런 ‘평평’... 한 경기 8타점 타이기록도

KIA, 롯데에 12 대 5 대승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공격 침범’ 이용규(25)가 한 이닝에 3점홈런과 생애 첫 만루홈런을 잇달아 터뜨리며 한국 프로야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좌타자 이용규는 29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 롯데와 원정경기에 톱타자로 선발출장해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3회초 무사 1, 3루 상황에서 롯데 선발투수 이재곤의 2구째 시속 135km짜리 싱커를 잡아당겨 선제 우월 3점 홈런을 뽑아냈다. 이용규의 올해 마수줄이 아지.

KIA는 채종범의 2점홈런에 이어 최희섭의 백투백 1점홈런으로 6-0으로 달아났다. 선제 홈런포의 주인공인 이용규는 계속된 2사 만루에서는 바뀐 투수 이정민의 상대로 볼 카운트 0-2에서 3구째 높은 148km짜리 직구를 통타.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대형 그랜드슬램을 날렸다. 이용규가 프로 데뷔 후 6

년 만에 처음 터뜨린 만루홈런이다.

이용규는 이날 3회에만 홈런 두 방으로만 7타점을 올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28년 만에 1이닝 최다타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 이닝 7타점은 130여년 역사의 미국프로야구에서도 흔하지 않은 진기록이다. 현재 뉴욕 양키스에서 불펜 투수로 활약하는 박찬호가 LA 다저스 소속이던 1999년 4월 24일 세인트루이스 소속의 페르난도 타티스에게 한 이닝 연타석 만루홈런을 얻어맞고 8타점을 헌납해 이 부문 메이저리그 불명예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종전 국내 프로야구의 한 이닝 최다타점 기록은 5타점.

롯데 소속이던 정구선이 1988년 9월4일 OB와 경기에서 5타점을 뽑았고 1999년에는 이승엽(당시 삼성)과 김인호(당시 현대), 최훈재(당시 두산)가 각각 한 이닝에 5타점씩을 수확했다.

이용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1-3으로 달아난 8회에는 무사 2루에서 시달린 중전 적시타로 2루 주자 안치홍을 홈으로 불러들여 마지막 8타점을 채웠다.

한 경기 최다타점(8타점)은 삼성 소속이던 정경배가 1997년 5월4일 LG전에서 한 차례 기록했던 것으로 이용규는 이 부문 타이 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경경사를 누렸다.

이날 홈런 두 방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8타점의 불꽃 활약이다.

지난 2004년 LG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이용규는 빠른 발과 정교한 타격을 자랑하지만 2005년 KIA로 옮긴 뒤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개인통산 홈런 수가 6개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딱딱이 타자였다.

이용규는 경기 후 “1회초 주루사를 당했던 것을 만회하려고 타격에 더욱 집중했다. 홈런 타자가 아니어서 큰 타구에 욕심내기 보다는 선형 주자를 불러들인다는 생각으로 짧게 끊어치다 보니 온 좋게 홈런이 됐다”며 기쁨을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가능성 봤다

U-20 여자월드컵 결승행 좌절... 지소연 7골 월드컵스타 ‘우뚱’

29일 밤 독일 보훔의 레비어퍼워 경기장에서 열린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독일과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이 패해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열악한 국내 환경에도 기적처럼 4강에 올랐던 U-20 여자대표팀은 성인 대표팀 기준으로 세계랭킹 2위인 독일을 맞아 총력전을 펼쳤지만 기술과 체력 모두 버거운 경기였다. 경기전부터 빗줄기가 그라운드를 적신 가운데 최인철 감독은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4-4-2 포메이션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특급 스타로 떠오른 지소연과 정혜인(현대제철)을 전방 투톱에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김진영과 이현영(이상 여주대), 중앙 미드필더에는 김나래(여주대)와 이민아(영진전문대)를 세웠다.

전반 초반은 팽팽하게 이어졌지만 한국이 첫 골을 허용하면서 급격하게 주도권이 독일쪽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독일은 전반 7분 포프가 올려준 크로스를 실비아 아놀드가 왼발로 헤딩슛을 날렸으나 골키퍼 문소리가 잘 잡아냈다. 한국은 3분 뒤 독일 왼쪽 코너 부근에서 정영아가 크로스를 올리자 정혜인이 뛰어들며 왼발로 발리슛을 날렸으나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다.

찬스를 놓친 뒤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 왼쪽 전열을 줄기차게 공격하던 독일은 전반 13분 역시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스베나 후트가 슬라이딩 슛을 날려 골문을 갈랐다.

골키퍼 문소리는 손 쓸 틈이 없었고 수비수들이 후트를 놓친 게 아쉬운 장면이었다.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던 한국은 전반 26분 두번째 골을 허용했다. 또 왼쪽에서 올라온 공을 정영아가 걸어버었지만 아크 정면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콜리크가 강력한 중거리슛을 날려 골문을 갈랐다.

문소리는 방향을 잡고 다이빙했지만 이번 대회 골든볼(MVP) 후보에 오른 콜리크의 공이 워낙 강해데다 빗줄로 미끄러온 탓에 손을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전반전 유효 슈팅수가 1-6으로 크게 뒤진 한국은 후반 들어 총반격에 나섰지만 역습한 방에 추가실점하고 말았다.

후반 5분 아놀드의 슛을 뚫으며 막던 한국은 골대 정면에서 중앙수비수 김혜리가 걸어진 공이 포프의 다리에 걸리면서 골문 안



29일 밤 독일 보훔에서 열린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한국과 독일의 준결승에서 임선주와 알렉산드라 포프가 공중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굴러들어갔다.

포프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8골째.

검찰을 수 없이 무너진 한국은 3분 뒤 콜리크에게 다시 중거리포를 맞아 0-4로 스코어가 벌어졌다.

기다리던 만회골은 후반 19분에야 터졌다. 독일 아크 정면에서 공을 잡은 지소연은 그림처럼 독일 수비수 2명을 제친 뒤 오른발로 때린 인사이드슛이 골대를 맞고 들어갔다. 지소연이 이번 대회 5경기에서 7골째를

올리는 순간.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은 1분 뒤 어이 없는 수비 실책으로 또 추가골을 먹었다.

포프가 날린 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부근으로 떨어지자 정영아가 순간 착각한 듯 손으로 잡고 말았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포프가 대회 9호 골을 기록했다.

승부가 기울자 이후 양팀 공방전이 잦아 이 이어지다 종료 휘슬이 울렸다. /연합뉴스

신지에 상큼한 첫 발

브리티시여자오픈 1라운드 1언더파 7타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 신지에(22·미래에셋)가 두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향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신지에는 2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링크스(파72·645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1언더파 71타를 적어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에 출발한 신지에는 아직 많은 선수들이 1라운드를 끝내지 못했다

만 리더보드 상단에 자리를 잡고 2008년 이후 두번째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타석 정확도가 높지 않았던 신지에는 그린도 7차례 놓치기도 했지만 두차례 벙커에 빠진 위기를 파로 잘 막아내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한국시간 오후 9시40분 현재 8개홀을 돈 양희영(21)이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1위를 달리고 있고 1라운드를 모두 마친 줄리 잉스터와 브리타니 랭이 1언더파 71타로 신지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합뉴스



신지애가 29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 1라운드 2번 홀에서 벙커 탈출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차두리 챔스리그 풀타임 데뷔

셀틱, 포르투갈 SC브라가에 0대3 패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한술밥을 먹는 기성용(21)과 차두리(30)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나란히 풀타임을 뛰었지만, 팀은 저 빛이 바랬다.

기성용과 차두리는 29일 오전(이하 한국

시간) 포르투갈 브라가의 에스타디오 무니시팔 데 브라가에서 열린 SC브라가(포르투갈)와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 1차전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교체 없이 경기를 마쳤다.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 지난 시즌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셀틱에 등지를 튼 차두리는 오른쪽 풀백의 임무를 맡았다.

기성용과 차두리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셀틱은 전반 26분 앨런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 결승골을 얻어맞으며 0-3으로 완패했다.

기성용이 핸드볼 반칙으로 경고를 받으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이어 후반 31분 나이지리아 국가대표팀 수비수 우와 에치에질레, 후반 43분 마테우스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주저앉았다. /연합뉴스



GOLFZON
광주 최고시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인트골프존